

교육의 황폐화

최근의 인연 호프집 화재 사건은 우리들 눈앞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뜨겁고 매운 연기속에서 그을리고, 신음하다 절명한 비극적인 대참사이다. 어린 주검 앞에 선 부모들의 애끓는 목소리, 친구들의 화한의 울음소리가 TV화면을 메우고, 담당기자는 이 나라 청소년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환락의 거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흥청거리는 모습은 이 사건이 과거의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거론된 바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청소년 문제가 그 심각성에 비해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이리 심각한 주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문제 인식은 진부한 해결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항상 성인의 관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음을 주의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각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교육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사회의 성인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 성인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현실'과 '객관적 사실로써 존재하는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들은 흔히 사실로서의 '교육의 현실'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가공의 현실로서 지각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11일 밤 '학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어느 TV 토론프로그램에서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육의 문제는 이러한 성인과 청소년의 괴리로부터 잉태한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예를 들어보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학교 혹은 담당 교사의 의도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략 '예절교육' '종교교육' '물자 절약' '새생활 운동' '봉사활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의 문제현실에 대한 조망과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문제현실과 위기상황'에 대한 조망과 이해로부터 출발해야지, 성인의 목소리가 더 커서는 안된다.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흔히 인성교육에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개발(開發) 콤플렉스'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전인격적 존재로 태어나고 전인격성을 내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그곳엔 것을 교정하거나,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개발적 시각은 적당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통합적 인격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의 발견과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성장의 기쁨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고진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성인의 시각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위기상황 초래

최근의 인연 호프집 화재 사건은 우리들 눈앞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뜨겁고 매운 연기속에서 그을리고, 신음하다 절명한 비극적인 대참사이다. 어린 주검 앞에 선 부모들의 애끓는 목소리, 친구들의 화한의 울음소리가 TV화면을 메우고, 담당기자는 이 나라 청소년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환락의 거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흥청거리는 모습은 이 사건이 과거의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거론된 바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청소년 문제가 그 심각성에 비해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이리 심각한 주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문제 인식은 진부한 해결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항상 성인의 관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음을 주의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각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교육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사회의 성인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 성인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현실'과 '객관적 사실로써 존재하는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들은 흔히 사실로서의 '교육의 현실'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가공의 현실로서 지각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11일 밤 '학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어느 TV 토론프로그램에서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육의 문제는 이러한 성인과 청소년의 괴리로부터 잉태한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예를 들어보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학교 혹은 담당 교사의 의도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략 '예절교육' '종교교육' '물자 절약' '새생활 운동' '봉사활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의 문제현실에 대한 조망과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문제현실과 위기상황'에 대한 조망과 이해로부터 출발해야지, 성인의 목소리가 더 커서는 안된다.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흔히 인성교육에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개발(開發) 콤플렉스'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전인격적 존재로 태어나고 전인격성을 내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그곳엔 것을 교정하거나,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개발적 시각은 적당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통합적 인격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의 발견과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성장의 기쁨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IMF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건만 과소비 '꿈틀'

가구당 빛 평균 2천만원...소비재 수입 증가세

한동안 사라졌던 '과소비'라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IMF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씹씹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우리 경제의 모습인 셈이다.

지난 8일 문화일보와 소프레스 글로벌 리서치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IMF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자료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생활형편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응답자들의 54.7%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IMF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최소한 3년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소비행태는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시 과소비 풍조에 젖어들고 있다.

지난 여름 휴가철의 해외여행 경비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지난 9월 소비재 수입증가율은 60%로 원자재의 40.7%를 크게 뛰어넘기도 했다. 백화점들은 고급 외제 화장품과 의류 등의 매출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내부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가구당 빛이 작년 말보다 52만원 더 늘어나 평균 2000만원



"에너지 절약위해 내복입자" 녹색연합 회원들은 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내복을 입은채 실내온도를 낮추는 대신 내복을 입지는 취지의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벌였다.

1회용품 규제 느슨해졌다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느슨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규모가 큰 패스트푸드점 등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동네 슈퍼마켓과 중소규모 음식점, 도시락 전문점, 재래 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업소 8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가 44.7%(3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월 말까지 서울시내 규제대상업소 16만2천4백여 개 가운데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4천4백80여개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새 천년의 첫 태양은 섬에서는 울릉도 성인봉, 육지에서는 울산 울주군 가시산 정상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0년 1월1일 일출시각이 고도 983m의 울릉도 성인봉(오전 7시24분48초)이 국내에

새천년 첫 태양 울릉도 성인봉 7시 24분 '본다'

서 가장 이르다고 9일 밝혔다. 육지에서는 고도 1,240m의 가시산 정상에서 오전 7시26분16초에,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이 아닌 평지에서는 목도의 일출시각이 오전 7시26분19초로 가장 빠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각급학교 교원,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종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가지 아동복지 관련 법안을 종합 심의, 아동학대 방지와 유아 안전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성폭행, 성폭행 등의 아동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복적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세컨드 화재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교통신안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생활정보

병역필자 해외여행신고제 폐지

생활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 때 병무청에 국외여행신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필자의 국외여행신고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금 장기체납자 금융 불이익

금융 국세청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세금을 장기체납한 사람에게 대출제한, 신용카드 사용 중단 등 금융거래 불이익 대상으로 간주되는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 △3회 이상 체납한 자로 체납금 1천만원 이상인 사람들과다.

변호사 선택서비스 개설

통신 민원인이 직접 담당변호사를 선택하고 수임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이버 복덕방' 개념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주)로마켓 아시아는 민원인과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http://www.lawmarket.co.kr)를 개설, 2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료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교육 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자녀 94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만 30살 이하인 사람으로 고교 재학생은 학교장, 일반인은 주소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해당 지자체 정보통신교육원에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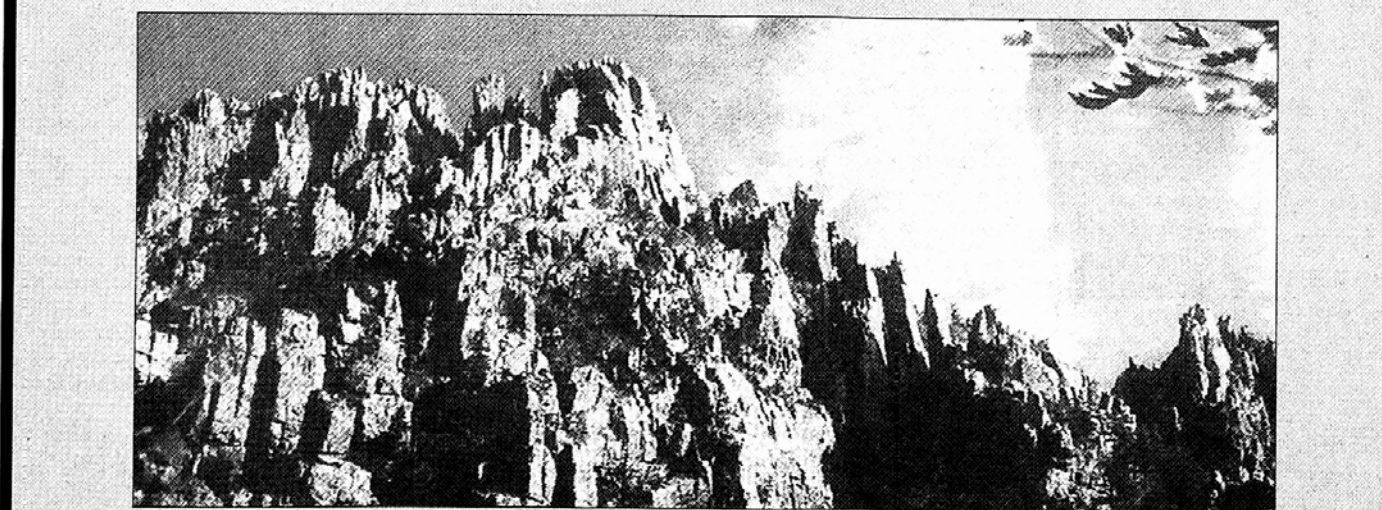
통계정보 한눈에 인터넷 서비스

통계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했다. 통계청이 마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STAR-KOREA' (www.stat.go.kr)에 들어가면 107개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399종의 각종 통계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이곳에는 고용·임금·인구·경기·재정·범죄 등 일상적인 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즐거찾는 검색코너'도 마련돼 있다.

위염환자 함유 계란 개발

건강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생명과학 벤처기업인 (주)씨트리는 닭의 면역기능을 이용, 위염과 십이지장염 등의 원인균을 막는 항체를 함유한 계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 계란이 안전성 면에서 일반계란과 동일하며 계란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서도 위염 등의 유효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제조원 : 금성 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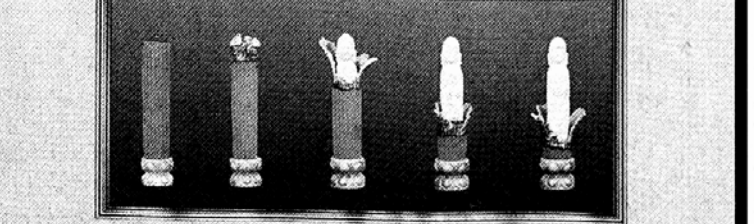
불사판속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Tel: 02)732-1522 • Fax: 02)737-0697 •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1~2개 주문시 동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Tel: 051)324-3731 • Fax: 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주최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1등 : 2명 (고승기념대 8개/세트)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4등 : 10명 (문구압스님 범음, 범패집 각 1질)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마하몰상 : 200명(범성계경말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